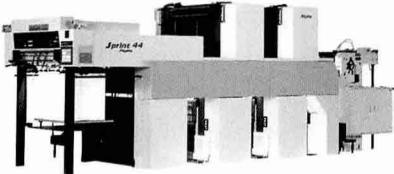


## 천일문화사 사옥 신축이전 양면인쇄기 도입도



천일문화사(대표 홍사원)는 최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장항동에서 경기도 파주출판단지로 사옥과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한편 아키야마(AKIYAMA) JPrint2P244(4×6전지 4색 양면 전용 인쇄기) 도입 계약을 원창인쇄기계(주)(대표 김병찬)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일문화사는 최근 출판업계의 2도/2도 물량증가 추세와 가격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아키야마 4×6 전지 기종을 선택, 인쇄기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꾀하고자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도입하는 아키야마 JPrint2P244는 높은 가능 정밀도의 고품질 인쇄를 실현하면서도 종이도 반전하지 않는 비반전식 양면기라는 특성을 발휘하여 종이의 끝까지 인쇄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으며, 아트지나 백상지뿐만 아니라 박엽지 인쇄 등 모든 종이에 관계없이 폭넓은 인쇄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인쇄판 동시 장착 장치, 인입프리트 장치, 종이사이즈 프리셋 장치 등의 인력절감화 장치를 탑재하여 오퍼레이터의 작업 편의성과 생산력 준비 시간 단축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세척액을 사용하지 않는 블랭킷 세척 장치, 오일 클린 및 오일 쿨링 시스템 등을 장착해 21세기 인쇄 문화의 화두인 친환경을 실현하고 있다.

## 하이테크인쇄 로랜드700 2대 동시 증설



하이테크인쇄(주)(대표 김동선)는 2002년과 2003년 만로랜드의 로랜드300을 도입한데 이어 최근에는 로랜드700 4색 인쇄기 2대를

동시에 도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테크인쇄는 로랜드300 2대와 로랜드700 2대를 통하여 CIP4의 핵심 주제인 프리프레스와 프레스의 원활한 워크플로우 실현에 한 발 다가서게 되었다.

하이테크인쇄에서 도입키로 한 로랜드700은 인쇄용지 취급 범위가 매우 다양해 호일과 같은 특수한 종이 뿐만 아니라 가장 얇은 종이에서부터 두꺼운 판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PECOM 프로세스는 로랜드700을 각 공장내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결합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비용과 작업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고도의 자동화 기술은 수동 작업이 많은 상업용 인쇄, 포장 또는 특수 목적 인쇄를 할 때 기장들이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며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

## 신무림제지 3년 연속 생산성 세계 1위

세계적인 제지설비 공급업체인 핀란드의 메트스페이퍼(Metso Paper)사는 최근 자사가 설비를 공급한 전 세계 23개 선진 제지회사를 대상으로 생산성을 조사한 결과, 신무림제지(대표 이원수, www.moorim.co.kr)가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조사 항목은 1일 생산량을 비롯해 총 가동중단율, 지절발생율, 1일 지절발생횟수, 단위지폭당 1일 생산면적, 단위지폭당 1일 생산량, 분당 생산속도, 코터 1일 지절발생횟수, 코터 1000km당 지절발생횟수, 총 가동율, 단위지폭당 1일 생산량 등 총 16개였다. 이 중에서 신무림제지 진주공장은 1일 지절발생횟수를 비롯해 분당 생산속도, 코터 1일 지절발생횟수, 코터 1,000km당 지절발생횟수, 단위지폭당 1일 생산량, 단위지폭당 1일 생산면적 등 6개 부문에서 1위를, 계획중지율과 지절발생율, 코터 지절발생율은 2위를 차지하면서 생산성 세계 최고임을 재차 입증하게 됐다. 특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생산성을 결정하는 코터 1000km당 지절발생횟수는 0.57회로 전체 평균 2.21회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며 생산속도도 분당 1438m를 기록, 전체 평균 942.2m에 비해 월등히 높다. 또한 단위지폭당 1일 생산량 역시 178.5톤으로 평균 112.4톤보다 월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신무림제지의 3년 연속 세계 최고 생산성 달성은 1999년 가동한 3호기의 안정화 실현과 제조 시스템 혁신,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개선 등이 어우러진 결과로 분석된다.

## 한국후지제록스(주)동인과 3자 물류 계약 체결



한국후지제록스(사장 정광은)는 지난 3월 23일 물류전문업체인 (주)동인(사장 이동윤)과 서울 중구 본사에서 물류전반에 대한 3자 물류 계약을 체결했다.

지금까지 한국후지제록스의 제품 및 소모품의 수·배송만을 담당해오던 (주)동인은 앞으로 한국후지제록스의 국내 영업을 위한 전국 4개 물류센터(창고) 운영 및 현물보관관리, 제품 및 소모품의 입·출고관리, 수·배송 등 물류업무 전반을 일괄적으로 대행하게 된다. 한국후지제록스 측은 이번 제휴로 (주)동인의 전문적인 물류관리 시스템을 통한 효율성 향상은 물론, 연간 36%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무궁화산업 CTF 돌레브800 V2 도입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출력전문업체인 무궁화산업(대표 홍영기)은 지난 3월 말 크레오의 고성능 CTF 장비 돌레브 800 V2(Dolev800 V2)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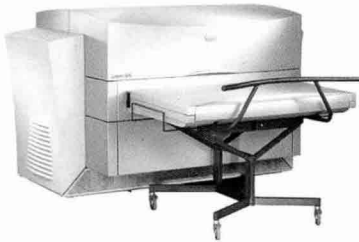
이번에 무궁화산업에서 도입한 돌레브800 V2는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크레오의 필름 출력 제품으로 필름 낭비를 최소화하는 출력



기로 잘 알려져 있다. 사용 매커니즘은 내장 드럼방식이며, 레이저 다이오드 650mm를 광원으로 사용한다.

망점 크기는 10에서 25micron이며 특히 망점 구현 기술인 터보 스크리닝 기술을 탑재, 데이터를 고속으로 프로세싱할 수 있다. 그리고 출력 해상도는 최저 1270dpi에서 최고 5080dpi이고 해상도에 따라 한시간에 최대 16장에서 29장까지 출력이 가능하다.

## 서진그래픽스 워크플로우와 로템 800II CTP 증설



부산 중구 대청동에 위치한 출력 전문업체인 서진그래픽스(대표 박노식)는 최근 크레오 브리스크 임포즈 워크플로우(Brisque Impose Workflow)를 포함한 로템 800II(V speed) CTP를 도입,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진그래픽스에서 도입한 로템 800II는 서멀(열 전사) 방식의 CTP 장비로 판 공급에서 현상까지, 전 과정이 완전 자동으로 이뤄진다. 해상도는 최고 3,556dpi까지로 시간당 최대 29장의 판을 출력해내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최대 9개까지 다양한 모양의 편칭이 가능하다.

로템 800II는 이전에는 옵션 사항이었던 FM 스크리닝을 탑재하여 기능 면에서 더욱 향상돼 뛰어난 이미지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편리하게 인쇄공정을 관리할 수 있다. 시간당 20판(2,540dpi 기준), 25판(2,400dpi 기준)까지 출력이 가능하며 필요시 옵션을 추가하면 로템 800퀀텀으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하

다. 이미징 범위도 종전에 650×1130mm에서 457×1130mm까지로 확장되었다. 또한 하나의 카세트에 한번에 100판까지 적재할 수 있으며 멀티 카세트를 사용하면 각기 다른 크기의 판을 500장까지 넣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서멀 하프톤 프루핑을 옵션으로 추가할 경우 최종 인쇄 전 확인 교정까지 받아볼 수 있어 인쇄물의 마무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번에 서진 그래픽스에서는 CTP 가동 워크플로우를 크레오의 브리스크 임포즈 퍼포먼스 듀얼을 사용해 페이지 임포지션에서 핀 맞춤, 판 출력까지 전 과정을 한 사람이 통제할 수 있어 인건비 절감은 물론 인쇄공정 단축 및 작업 효율화까지 도모할 수 있다.

## 경운출력센터 파주에 출력센터 오픈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출력 전문업체인 경운출력센터(대표 안영철)는 지난 4월 1일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에 위치한 파주출판도시 점프존 403호에 새로이 파주출판도시점(031-955-4321)을 개점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에 본사를 둔 경운출력센터는 15년 간 출력업무를 전문적으로 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오픈한 파주출판도시점은 사육전자 필름출력기 1대(본사 2대)를 비롯해 드럼스캐너, 대형실사출력기, 컬러 프린터 및 복사기 등을 갖추고 있다. 경운출력센터는 파주출판도시점 오픈을 계기로 서교동 본사와 파주출판도시점과 연결한 출력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한층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파주출판도시점은 평일에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출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토요일에는 오후 4시까지, 심야시간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서교점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경운출력센터는 필름출력, 고해상도 드럼스캐너, 대형 컬러 실사출력, 컬러 시안 출력, 컬러 복사, 디지털교정, 원색교정, 흑백 출력 및 복사, CD 백업, 바코드, POP 코팅, 제본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 마이크로큐닉스 이마콘 Flex tight949 스캐너 출시



이마콘(Imacon) 한국총판인 마이크로큐닉스(주)(대표 이병열)는 최근 이마콘의 스캐너 중 최상위 모델인 Flex tight848의 성능을 크게 개선한 새로운 모델 Flex tight949를 발표하고 국내 시판에 들어갔다.

Flex tight949는 새로운 광원을 채용하여 분당 200MB(16bit 기준)의 초고속 스캐닝이 가능한 제품으로서, Flex tight 848에 비해 200%의 속도향상을 이루었다. 또한 광원 산란장치를 사용하여 별도의 처리 없이도 원본의 먼지 및 스크래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스캐닝 할 수 있다. Flex tight949에는 이마콘 전용 먼지&스크래치 제거 툴인 Flex Touch가 업그레이드되어 있으며, Flex Touch 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는 거의 모든 먼지와 스크래치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

Flex tight949는 Flex tight 전용홀더 10개를 장착할 수 있는 자동 홀더 공급장치 외에 마운트된 슬라이드 필름(35mm) 50개를 한번에 장착하여 스캔할 수 있는 슬라이드 필름 자동공급장치를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어 많은 작업량이 필요한 사용자에게 높은 생산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Flex tight949는 오는 5월27일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04 국제 사진영상 기자재전 마이크로큐닉스 부스에서 직접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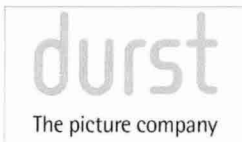
## 신무림제지 제지 색조 변경

신무림제지가 생산하는 네오아트지와 네오스노우화이트지, 네오라벨지, 네오파워라벨지, 네오쇼핑백지 등 도공인쇄용지류의 제품 색상이 더욱 화사해졌다.

신무림제지는 보다 밝은 색을 선호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지난 3월5일부터 이들 제품들을 Bluish-White한 색상으로 색조를 변경하는 한편 백감도(Whiteness)와 백색도(Brightness)를 향상시켰다. 특히 백감도의 경우 기존 제품 대비 3% 이상 향상, 인쇄물이 더욱 화사하고 자연스러운 색상을 가지게 됐다. 이번 색상 변경은 고급스러운 제품을 요구하는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품질 향상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신무림제지는 앞으로도 고객들의 품질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 마이크로큐닉스 Durst와 국내 총판 계약 체결

디지털 이미징 솔루션 전문기업인 마이크로큐



닉스(주)(대표 이병열)는 최근 이탈리아의 최고급 디지털 출력장비 전문기업인 Durst와 국내 총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시장공략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로큐닉스는 Durst사의 Lambda, Epsilon 등의 중대형 인쇄출력기, Rho 160/205 등 UV 출력기, Sigma 등 고속 스캐너 및 Durst 워크플로우 Prep Station 등을 공급하게 된다.

이로써, 마이크로큐닉스는 전문가용 디지털 이미징 시장에서 입력, 출력, 컬러관리에 이르는 완벽한 제품군을 갖추게 되었으며, 디지털 이미징 솔루션 공급업체로서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마이크로큐닉스는 이전 한국 총판이었던 대흥멀티통신의 Durst 관련 직원들을 흡수하여 총판 변경에 따른 고객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의 디지털 이미징 제

품 및 관련 인력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영화기획 스캐너 FineScan 2750XL 도입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디자인 기획 및 패키지 인쇄 전문업체인 영화기획(대표 이공열)은 지난 4월7일 후지필름(FUJIFILM)의 하이 스캐너인 FineScan2750XL을 도입, 설치했다고 밝혔다.

영화기획은 디자인 기획에서부터 패키지 인쇄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일반적인 스캔 외에도 이미 인쇄된 패키지를 재스캔 받기도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 영화기획에서 도입한 FUJIFILM FineScan2750XL은 일반 스캔 작업은 물론 3D 입체물의 경우에도 편리한 스캔 작업이 가능하다. 특히, 인쇄물을 재스캔 했을 경우 발생하는 물결무늬 현상(모아레 현상)을 탁월하게 보정하는 디포커싱(Defocusing)을 자동 지원하는 Auto Focus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모아레 현상 방지는 물론 그에 따른 부작용인 원고가 흐릿해져 디테일이 떨어지는 현상도 탁월한 USM 기능으로 해결하게 됨으로써 품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FUJIFILM FineScan 2750XL은 후지필름 하이 스캐너의 한 종류로서 CCD 소자를 RGB 각 1만500소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멀티렌즈로 구성되어 있어, 빠른 미리보기 기능과 원고에 따른 적절한 렌즈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누구나 쉽고 품질 좋은 스캔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이다.

## 솔루윈 FUJIFILM 렉셀 F-9000 3월에만 3대 공급

최근 과다한 필름출력기의 도입과 CTP의

도입이 주춤한 가운데 프리프레스 장비 공급 업체인 (주)솔루윈(대표 김상래)이 지난 3월에 FUJIFILM의 필름 출력기 Luxel F-9000을 거인그래픽스, 벽호미디어, 영화기획에 공급해 관계사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FUJIFILM Luxel F-9000은 출시 이후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필름출력기로 뛰어난 생산성(4×6 전지 2400dpi기준 시간당 38장-3범 기준)으로 이미 국내 시장에서도 정평이 나 있는 제품이다.

특히 서울 충무로에 위치한 거인그래픽스는 편집, 기획 출력 및 교정의 모든 과정을 제공하는 Total Communication Company로서 이번 F-9000 도입 및 장비의 안정적인 가동을 바탕으로 기존 시스템 대비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다.

또한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영화기획은 이번 F-9000 출력기의 도입으로 지난 30년간 해 온 패키지 디자인, 사진 제판 등을 기본으로 한 수작업에서 탈피,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출력기의 도입과 더불어 FUJIFILM CMS 소프트웨어인 PD System Pro도 도입하여 까다로운 컬러 매니지먼트 작업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 성도/솔루윈 스키 팀웍 훈련 실시



(주)성도GL과 (주)솔루윈(대표 김상래)의 전 임직원은 지난 3월13일 경기도 용평스키장에서 2004년도 상반기 팀웍의 일환으로 스키모임을 가졌다.

이날 스키 팀웍 훈련은 초보자의 강습 코스와 중급, 상급 코스로 나뉘어져 임직원 모두가 많은 대화와 땀방울을 통해서 팀웍을 돈독히 하고, 평소 직장 내에서 느낄 수 없었던 대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오감을 통해서 흠뻑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의 시작에서 마무리까지의

모든 제반 사항을 주관한 (주)성도GL의 유태 섭 상무이사는 스키 강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임직원들의 스키 강습, 준비운동 및 안전 사항, 매너 등에 대한 교육에 꼼꼼한 배려와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 앞서 김상래 대표이사는 "자연과 호흡하며 개성과 팀웍, 자신감과 리더십을 확고히 다지는 기회가 되고, 특히 변화하는 여러 상황과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또한 이러한 팀웍 훈련에서 익힌 끼와 팀웍 그리고 자신감으로 인쇄시장에 더 큰 희망으로 힘차게 떠오를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 제판조합 · KT PIN 프로젝트 조인식 개최

트매직, 피알아트닷컴, BGI, (주)아이네트테크놀로지



한국화상정보제판조합(이사장 이영환)과 (주)KT(한국통신)는 지난 4월2일 14시 명동에 위치한 KT 서울 동부영업총국 8층 회의실에서 KT와 한국화상정보제판조합이 상호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PIN(Publishing Information Network) 프로젝트'에 대한 상호협력 조인식을 가졌다. 이 조인식에는 화상제판조합 이영환 이사장, 이기우 전무이사, 공영두 이사를 비롯해 금번 'PIN 프로젝트'의 협력사 BGI 신익재 사장, 글루시스 박성순 사장, 소프트매직 김민수 사장, 피알아트닷컴 이근순 사장, 아이네트테크놀로지스 박기석 사장, 애플컴퓨터코리아 함석훈 이사와 KT 서울 동부영업총국 김지호 상무, 을지로지역 담당 정재순 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조인식은 KT 측이 처음으로 특정지역과 조합을 지정해 투자를 하는 국내 최초의 프로젝트다.

'PIN 프로젝트'라 명명된 이번 사업은 화상제판조합과 KT가 상호 협력, 최상의 광통

신 전용망을 제판 및 인쇄 관련 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을지로 및 충무로 지역에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인쇄에 필요한 대용량 파일의 원활한 전송과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사업이다.

한편, 화상제판조합과 KT는 오는 4월22일 16시부터 KT 서울 동부영업총국 10층 강당에서 'PIN 프로젝트'에 관한 연계한 프레젠테이션과 부가서비스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죽산기계 중고인쇄기 전문 수출업체로 도약



죽산기계(주)대표이사 에스 하늬 하크가 중고 인쇄기계 전문 수출업체로 급부상하고 있다.

1998년에 설립된 죽산기계는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은 물론 중국, 미국 등에 중고 인쇄기를 전문으로 수출하고 있다. 창업 이래 2003년 말까지 430만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진 죽산기계는 올 한해 200만달러 이상의 중고인쇄기를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죽산기계의 대표이사인 하크씨는 파키스탄인으로서는 파키스탄 카라치주에서 태어나 이슬라마바드에서 5년 동안 공무원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2년에 무역업을 위해 국내에 들어온 하크씨는 현재 한국 여성과 결혼, 한국국적을 취득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 화인페이퍼

### '화인종이 갤러리' 개관

화인페이퍼(대표이사 안상순, www.finepaper.co.kr)는 지난 4월9일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화인페이퍼 본사 2층에서 '화인종이 갤러리' 개관식을 가졌다. '화인종이 갤러리'는 국내에 공급되는 각 종이를 종류별, 용도별로 전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용도에 따라 용지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인페이퍼는 갤러리 개관을 맞아 "고객의 사랑

과 격려에 힘입어 성장해온 화인페이퍼가 다시 한 번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자 한다"며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는 마음가짐으로 야심차게 화인종이 갤러리를 고객들에게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 HP 차세대 기업 전략 '넥스트 챕터' 발표



지난 4월 14일 한국HP(대표 최준근, www.hp.co.kr)는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초고속 디지털 복합기 제품'의 출시와 함께 이를 활용한 차세대 기업용 프린팅 전략 '넥스트 챕터(Next Chapter)'를 발표했다.

이 전략은 기업이 HP의 프린팅 솔루션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개선함은 물론, 프린팅 환경의 운영 및 관리비용을 30% 가까이 절감하고 기업 생산성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넥스트 챕터' 전략의 중심으로 기업용 프린팅 시스템의 전체적인 관리를 위한 토탈 프린트 매니지먼트(Total Print Management, 통합 프린트 관리)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는 제품과 솔루션, 서비스는 물론 비용지불까지의 통합 패키지를 통해 인쇄, 복사, 스캔에서 디지털 전송, 네트워크 폴더 등 관리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원하는 완벽한 출력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HP이미징프린팅그룹의 이기봉 부사장은 "많은 비즈니스 처리과정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업의 프린터, 복사기 및 팩스 설비에 대한 관리의 개선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면서 "프린팅 환경관리를 통해 관련 비용을 최대 30% 가량 줄일 수 있다는 가트너 그룹의 조사결과처럼 이미징 및 프린팅 환경에서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이 차세대 전략의 핵심으로 대두된다"고 밝혔다.

## 성도GL · 솔루윈 인사 개편

Fuji Film의 그래픽아트 미디어(재료)와 시스템을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주)성도GL과 (주)솔루윈 (대표 김상래)은 지난 4월1일부로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 이동은 2003년의 사회 경제적 불황과 더불어 업계의 전반적인 침체를 일소하여 혁신적이고 주도적인 업계의 리더로서 나아가는 첫 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 인사 내용은 2003년도 필름출력기 부문 국내 최대 판매를 이룩해낸 (주)솔루윈의 김동길 상무이사가 전무이사로 승진함으로써 Fuji의 장비 판매 및 기술력을 더욱 더 향상시키는데 매진하고, 또한 대형고객사인 대리점과 신문사를 총괄하고 있는 (주)성도GL 영업마케팅팀의 정희호 이사가 상무이사로 승진됨으로써 보다 철저한 영업관리와 적극적인 마케팅에 한층 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리고 2004년부터 고객지원팀, 무역파트, 상품관리파트, 전산파트의 4개 부문을 총괄하게 된 (주)성도GL의 유태섭 이사가 상무이사로 승진하면서 고객관리적 측면에서 대내외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주)성도GL의 Fuji Digital Plate 영업담당인 손동구 차장, (주)솔루윈의 CTP 및 CTF 등 장비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원 차장과 박도영 차장이 각각 부장으로 승진함으로써 CTP 관련 영업활동에 한층 더 높은 성과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 무림제지 · 신무림제지 여신지원 시스템 설명회 개최



무림제지와 신무림제지는 지난 3월25일 고객사를 초청, 여신지원시스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고객감동서비스의 일환으로 지난 1월 국내

제지업계 최초로 도입한 고객사 여신지원시스템(Bipas 21:Business Payment System)은 무림제지와 신무림제지의 신용을 고객사가 공유해 금융권으로부터 보다 쉽게 여신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범창지류판매, ACTS, IPP, 삼미지업, 우일필프앤페이퍼 등 40여개 회사가 참여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무림제지와 신무림제지는 고객사 여신지원시스템을 비롯해 민·형사상 법률 상담을 위한 고객법률센터 운영을 통해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여신지원시스템 설명회에 앞서 고객사와의 원활한 회계업무 처리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설명회도 있었다.

## 한국필름 서부영업소 개소식



프리프레스장비 공급 전문업체인 한국필름(대표이사 차의송)은 4월16일 오후 6시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166 서교빌딩 1002호에 서부영업소를 설치하고 인쇄 및 관련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한국필름은 최근 포괄적 색관리 시스템인 '코니카 미놀타 콘센서스 프로'를 선보였다.

## 시스템테크놀로지서비스 대구매일신문에 납품

시스템테크놀로지서비스(약칭 STSC)는 지난 4월에 대구에 있는 매일신문사에 EskoScanner, ScanMate F10 및 분공장전송용 Workflow S/W 등 총 4억원 상당의 시스템을 납품하였다. 특히 이번 Project는 한국일보사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PC version의 QuarkXpress S/W를 이용해 신문을 제작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STSC는 외국의 Workflow S/W개발 회사와 기술협력으로 개발된 Workflow S/W를 자사의 Blend화(가칭 NewsNet)를 하여 처음으로 출시를 하는 것이다.

앞으로 STSC는 매일신문사에서의 고객환경에 맞는 Customizing을 통해 국내의 신문 시장에서의 반응을 본 후 이를 응용한 상업용S/W도 곧 출시할 계획이다.

신문사용은 속도와 안정성에 Point를 두고 있으며, 상업용은 저가에 투자대비 효율성을 높이며 경영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Point를 두고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시스템테크놀로지서비스 이준우 대표는 "대구매일신문사에 납품을 통해 High-End의 저가모델 스캐너인 ScanMate F10의 품질과 안정성을 다시 한 번 제고를 하였고, 지방 고객과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 화성프린원 ISO 9001 획득

(주)화성프린원(대표이사 허강무)은 지난 4월 1일 ISO 9001 국제규격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허강무 대표이사는 "이번에 우리 회사가 취득한 ISO 9001 인증은 고객만족과 최고품질을 지향하는 화성프린원의 철저한 품질 관리에 대한 결과물"이라며 "우리 화성프린원의 임직원들은 인증서 획득에 안주하지 않고, 기획에서 납품, 최종 마무리까지 고객의 공금증을 풀어주고 고객과 함께하는 회사로 거듭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프린원은 1993년 개인회사로 출발한 뒤 1995년 법인으로 전환했다. 그 후 2002년 6월에 현 파주출판문화단지로 사업장을 이전했으며 초등학교 학습지, 교과서 및 상업 인쇄를 주로 인쇄하고 있는 중견 인쇄회사이다.

